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을”

김관영 도지사, 조규홍 복지부장관 만나 설득… “의대정원 확대와 별개로 우선 추진해달라” 건의

김관영 도지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설득 작업을 벌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조 장관을 직접 찾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 사안으로 분리해 법률제정 및 설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이미 당정이 합의한 사항으로 정부(보건복지부·교육부) 협의가 완료되었고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기존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의료인력 부족 심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사진 왼쪽)는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조 장관을 직접 찾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 사안으로 분리해 법률제정 및 설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황에서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단기간내 공공의료인력 배출이 가능한 방법은, 전북도는 그동안 정치권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정부에 촉구해 왔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핵심인사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방문하게 된 것이며 1월 26일, 27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위원들을 개별 방문해 관련법안의 조속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지는 공공의료를 강화해 보건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연내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검찰 대장동·위례

이재명 소환 통보

27일·30일 중 하루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이 통보한 날짜는 설 연휴 이후인 27일 또는 30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설 연휴 이후인 27일이나 30일 가운데 하루를 선택해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 내부 비밀을 화천대유실소유주 김만배씨 등에게 전달하고 급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급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총 8회 언급됐으며, 정치



초대형 수소용기 제조 전문기업, 완주군에 투자

수, 위호선 ㈜에테르씨티 대표, 최홍식 완주테크노밸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6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초대형 수소용기 제조 전문기업 (주)에테르씨티 투자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 유희태 완주군

적 동지'로 표현되기도 했다.

지난 12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방식 및 서관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 소환 조사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적극 용인했다면, 민간

사업자들에게 수익을 몰아 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이 대표가 성남도개공 직원에게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등의 진술 확인 작업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 전 실장은 김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김씨의 전화통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는 428억원에 달하는 이 지분에 대해 “김씨가” 이 시장(이재명 대표)

측 몫이라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같은 자신의 과거 발언이 전부 허언이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통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0일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를 불러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다. /뉴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권독가’ 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책방’ 연다

“커피 마시고 책 보는 편안한 공간 될 것”

주택 개조 공사 진행 중… 이르면 내달 개소

퇴임 후에도 꾸준히 책을 추천해 온 문 전 대통령이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책방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계 한 의원은 1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이 커피 마시고 책도 볼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책 관련 된 말씀을 하시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책방) 공사도 꽤 진행됐으니 조만간 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평산마을의 주택 한 채를 책방으로 개조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 곳에는 문 전 대통령이 기증한 책들도 진열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역시 한겨레와 한길사의 공동기획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르면 내달 동네 책방을 열 계획을 밝혔다. 책방을 풀뿌리 정치 공간으로 활용하며 지역 사회 문화 운동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히미 여러 지역에서 서점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제가 사는 평산마을

에서도 작은 책방을 열어 여러 프로그램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책방 이름은 ‘평산마을 책방’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직접 ‘책방지기’로 나서 뜻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책방을 열면 저도 책방 일을 하고, 책을 권하고 같이 책 읽기를 하려 한다”며 “홈페이지를 통해서 책방의 일상 모습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책방을 열 생각을 하게 된 계기 중 하나로 평산마을 주민들을 꼽았다. 그는 “평산마을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사골인데 제가 여기로 사저를 정하면서 시위로 인한 소음과 욕설이 마을을 뒤덮어 버렸고 주민들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식당이나 카페, 가게를 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는 걸 보면서 제가 도움드릴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마을책방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퇴임 후에도 계속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책을 추천해왔다. /뉴스

소규모 고령 농업인 농기계·작업 지원

윤정훈 도의원,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윤정훈 도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2023년 첫 회기인 제97회 임시회(2월 2일 개회)에서 고령농업인 소규모 영농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조례안의 목적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 지원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농업인 중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인면서, 농가당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에서 도지사는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윤 의원은 “도지사는 매년 지원대상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지원 사업은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농촌인력 중개·알선을 위한 지원, 은·오프라인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범위를 설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농작업 지원대상자가 대상농지를 자경(自耕)하지 않았을 때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김재훈 기자

2023년도 여행은 풍요롭고 찬란한 고창에서

고창군

풍요롭게 찬란하게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구시포 쌍둥이등대